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2.20~2017.12.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올바른 삶 통해 행복 누리게하는 가르침이 불교"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수업
김사업 지음
불광 펴냄
1만 6천원

이 책의 저자 김사업 박사는 불교인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인사다. 교수직을 버리고 전문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이력도 큰 화제였지만, 정확하면서도 공감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불교 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강의를 듣다보면, '불교가 이토록 친근하고 흥미로운 가르침이었나' 싶을 만큼 깜짝 놀란다. 한 번 들으면 단박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의 명강의를 현장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시작한 사회생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삶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했다. 1년여 만에 장래가 촉망되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했다. 이후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일본 교토대학에 유학해 불교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수년간 대학 강단서 불교를 가르쳤지만 '아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 교리'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강단을 떠났다.

그리고 남해안의 외딴섬 '오곡도'에 들어가 간화선 수행에 매진했다. 그 후 16년이 흘러 오늘에 이른다. 그 사이 전 세계의 고승들과 유명 수행처를 찾아다니며 함께 수행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의 글은 먼저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에 2년 6개월 간 연재되었다. 연재 당시 독자들의 절대적인 호응은 물론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론과 실천, 교리와 수행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몸으로 체득한 불교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또 안개 속의 섬처럼 닿을 듯 말 듯한 '무아, 연기, 공, 자성, 업, 마음, 유식, 윤회, 열반, 해탈' 등의 불교 사상을 우리의 일상적 삶에 대입해 명확하게 풀어냈다. 마치 어둠 속에 딸각 불이 켜지듯,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 열어준 것이다. 그것은 곧 지금 나를 억누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자유로운 삶, 그럼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간결하다. 불교 교리의 고갱이만을 추려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간결한 구성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저자, 16년동안 남해안 오곡도서 수행
불교사상을 일상적 삶에 대입해 해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방법 제시

감동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는 온전히 마음에 스며들어 눈이 되고 귀가 되고 혼이 된다. 선(禪)을 바탕에 깔고 연기, 공, 유식의 핵심을 모두 보여주며, 정곡을 찌르는 일상적인 실례를 통해 그 핵심이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들게 한다.

글쓰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누구라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퇴고 과정을 수십 번 거치며 낱말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썼다. 책 속에 갇힌 불교가 아니라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불교가 되도록 한 과정이었다.

저자는 말한다.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알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부작용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라고. 이 책이 인문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읽는 순간 '앎'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내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진단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계발서'이기도 하다. 삶을 이롭게 이끄는 힘을 자신 안에서 찾게 만드는 책을 진정한 인문서라고 할 때, 이 책은 우리 시대 새로운 명저이자 미래의 고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부처님은 인생은 고(苦), 즉 괴로움이라고 했다. 진취적이며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면 그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나 살다보면 느낀다. 숱한 방황과 도전, 성취와 좌절, 웃음과 탄식 사이를 넘나들며 절실한 물음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때가 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문 고전을 탐독하고 선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보지만,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불교를 통해 삶의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며 괴로움에 속박되지 않는 삶을 갈구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머리로는 간신히 이해해도, 막상 실제 삶으로 돌아오면 그 가르침과 지혜를 적용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고,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야말로 인생, 삶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당시 대중의 언어(빨리어)로 당신의 깨달음을 아주 쉽게 설법했고, 누구나 그 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 각자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불교교리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더욱 심오하고 난해해졌다.

불교사상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서도 유추되듯 한없이 방대해졌고 철학적 사유의 개념으로 변모됐다. 결국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도리어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운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많은 불교서적이 고전어로 쓰인 경전을 번역하거나 난해한 사상을 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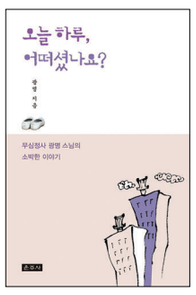
또는 단지 쉬운 위로와 힐링을 내세우며 본질은 외면한 채 그럴싸한 껍데기로 치장만 할 뿐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한다. 불교의 진면목을 직시하며 우리의 실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괴로움을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문학, 역사, 철학 등 모든 인문학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그러므로 그 끝은 종교적 물음에 닿게 되며, 이 책은 불교의 답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중생의 고통 원인 바로보지 못하면 불교 아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광명 스님 지음
운주사 펴냄
1만 4천원

소박하다. 절이 그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스님이 그러하고, 절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무심정사는 소박하고 소탈하고 정겹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이 작은 책 속에는 읽는 이들을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이야기, 때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고고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우리네 보통사람의 세상사는 모습과 정이 풍기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다.

부처님의 법은 지혜와 자비의 두 방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둘은 다르지 않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비롭지 않을 수 없고 자비로운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둘은 불교의 방편이자 궁극이다. 따라서 중생의 희로애락과 공감하지 못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오늘은 어떠셨나요?"라고 묻는 광명 스님은 동두천 마차산이 바라보이는 솔향기 그윽한 작은 절 무심정사에 살고 있다. 작은 절임에도 젊은 신도들이 많은 이유는, 굳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광명스님 때문이다.

무심정사에는 봄이면 꽃 피고 새 울고 여름 녹음과 가을 단풍과 겨울 눈 내리는 마차산 사계절 풍경이 잘 보이는 창 넓은 미소방(微笑房)이 있다. 미소방으로 많은 이들이 스님을 찾아온다. 부부갈등이나 자녀문제, 사업문제 등등을 스님이 내준 따듯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스님의 따듯한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무심정사를 내려간다.

중생과 공감못한 지혜는 메아리 일뿐
'밥값해라', 저자의 삶과 수행의 철칙
보통사람의 세상사는 얘기 잔잔히 펼쳐

쌀 한 톨에 일곱 근의 무거움이 있다고 경책한 옛 어른들의 "밥값해라!"라는 말은 스님이 자신의 삶과 수행의 철칙으로 삼는 글귀이다. 닭벼슬보다 못하다는 중 권력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스님의 마음과 행동과 글은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런데, 깨달음을 자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하여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눈을 감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중생들의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은 불교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만이 희망인 것은, 사랑과 자비심이 인간이 발현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큰' 스님을 외치고 추앙하는 세태에서, 스스로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낮추고 낮추며 다시 발심하고 중생과 함께하는 스님의 모습은 출가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광명스님은?
동두천 마차산 무심정사에 머물고 있다. 마차산이 그림처럼 보이는 법당 미소방에서 무심정사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 한잔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지낸다. 더불어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군포교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을 수행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신국판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신국판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신국판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